

미래창조과학부 http://www.msip.go.kr		<h1>보 도 자 료</h1>		대한민국 재도약의 힘, 창조경제	
보도일시	2016. 3. 15.(화) 석간(온라인 3. 15. 06:00)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				
배포일시	2016. 3. 14.(월) 16:00	담당부서	과학기술정책과		
담당과장	정희권(02-2110-2520)	담당자	이태용 사무관(02-2110-2527)		

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 2016년도 시행계획 추진

- 과학기술기본계획 5대 분야 78개 추진과제 정책과 예산 연계에 집중
- 정부 R&D혁신을 위해 연구자 친화적 환경 조성 추진 및 투자의 전략성 강화

- 미래창조과학부(장관 최양희, 이하 '미래부')는 과학기술분야 창조경제 실천 전략인 「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(2013~2017)」(13.7)에 따른 2015년도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, 2016년도 시행계획을 제19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종합·확정하였다.
- 미래부는 매년 과학기술기본계획의 5대 분야 78개 추진과제에 대한 21개 중앙행정기관의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연도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한다.
 - 국가 연구개발(R&D) 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21개 중앙행정기관의 추진실적 및 시행계획(안)과 2017년도 예산과의 연계를 강화하고,
 - 각 기관에 대한 권고사항의 조치 결과를 2016년도 자체평가부터 반영하는 등 정책·예산·평가 간 연계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.
 - 2015년도 추진실적을 점검한 결과, 과학기술혁신역량 강화, 창업활동 지원 등을 포함하여 대부분 지표가 정상추진 중이었으며,

- 특히, 기술수출액은 '13년 대비 184%가 증가한 9,765백만\$을 기록하여 당초 2017년도 목표(8,000백만\$)를 122% 초과달성하였다.

※ 기술수출액 지표 : ('13년) 5,311백만\$ → ('15년) 9,765 백만\$ ('14년 기술무역통계조사)

- 중소기업 기술경쟁력강화, 삶의 질 투자 확대 분야에서는 개선이 요구되어 2016년도 시행계획과 2017년도 정부R&D 예산 투자방향에 반영하여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.

□ 2016년도에는 기본계획의 이행을 위해 국가전략기술 개발, 중장기 창의역량 강화, 신산업 창출지원을 집중 추진한다.

< 과학기술기본계획 5대 전략 및 주요 투자계획 >

5대 전략	주요 투자 계획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[전략1] R&D 투자 확대 ● [전략2] 국가전략기술 개발 ● [전략3] 중장기 창의역량 강화 ● [전략4] 신산업 창출 지원 ● [전략5] 과학기술기반 일자리 확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총 정부 연구개발투자 지속 확대 ※ '16년 19.1조원 투자 ● 미래성장동력 창출(5G, 지능형 반도체 등) ※ ('15년) 1조 810억원 → ('16년) 1조 1,807억원 ● 창의역량 강화 위한 기초연구 확대 ※ ('15년) 1조 729억원 → ('16년) 1조 1,041억원 ● 중소·중견기업 기술혁신 지원 확대 ※ ('15년) 1조 3,629억원 → ('16년) 1조 3,706억원 ● 재난재해·안전 분야 투자 확대 ※ ('15년) 6,267억원 → ('16년) 7,150억원

< 정부 R&D 투자 >

- 기술 분야별, 정책 유형별 정부 R&D 중장기 투자전략을 마련하여 '선택과 집중' 투자를 강화한다.
 - 중장기 창의역량 강화를 위해 정부 R&D의 기초연구 비중을 '16년도에는 39%로 확대하는 한편
 - 중소·중견기업 투자 비중을 18%까지 확대하여 당초 '17년도 목표인 18%를 조기에 달성할 계획이다.

< 연구자 친화적 환경조성 >

- 한편, 질 높은 연구성과 창출을 위한 연구자 친화적 R&D 환경조성을 위해 R&D 혁신을 지속 추진해 나간다.
- 범부처 공통으로 국가R&D사업에 관한 연구서식과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여 연구자의 행정부담 경감을 유도하고,
-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공고 확인에서부터 과제신청까지의 창구 단일화를 확대한다.

※ 연계기관 수(누적) : ('15년) 12개 → ('16년) 17개 → ('17년~) 확대

< 신산업 창출지원 >

- 이와 함께, 기술이전과 규제 개선을 통한 중소·벤처기업 중심의 신산업 창출 지원도 강화된다.
- 성공적 기술이전을 위해 사업화 초기 장벽을 극복할 수 있는 지원이 확대되고, 출연(연)의 중소·벤처기업 기술혁신 지원을 강화한다.

※ 연구소기업 설립(누적) : ('15년) 160건 → ('16년) 260건(신규 100건)

※ 산업기술 중심 출연(연) 주요사업비의 1/3이상을 중소기업 협력에 투입 (~'17년)하여 중소·벤처기업의 기술혁신 지원을 강화한다.

- 붙임 : 1.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 2016년도 시행계획 개요
2. 5대 전략별 2016년도 시행계획 주요 내용



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이태용 사무관
(☎ 02-2110-2527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시행계획 수립 개요

- 창조경제를 통한 경제 부흥 및 국민 행복 추구라는 국정비전 실현을 목표로 향후 5년간의 과학기술혁신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한 『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(2013-2017)』 수립('13.7.8)
- 기본계획의 이행을 위해 범부처적으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·추진

□ 대상기관 및 사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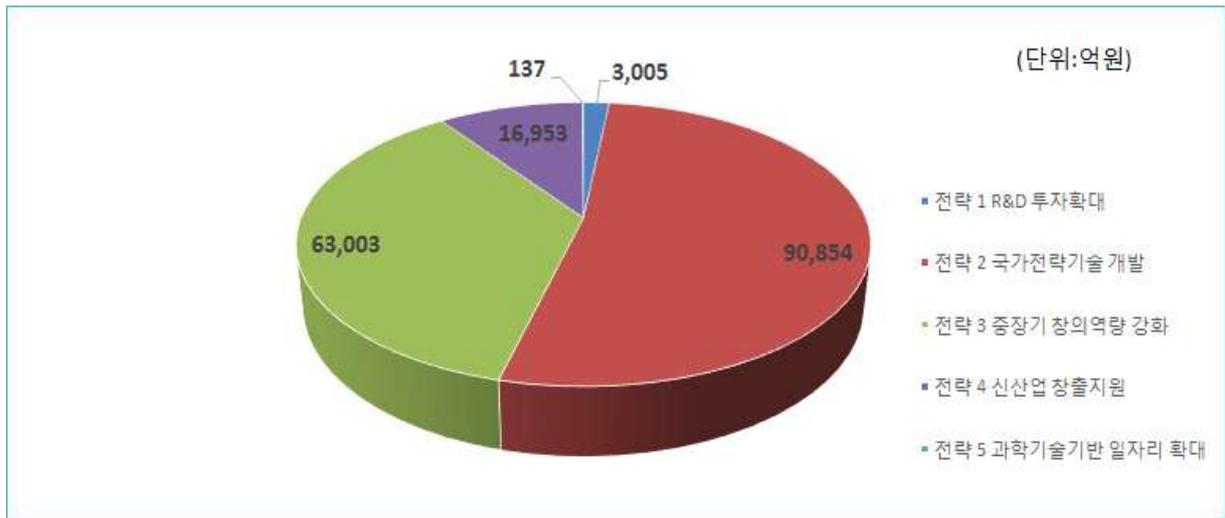
- 대상기관 : 21개 중앙행정기관(11부·2처·7청·1위원회)
 - 기획재정부, 교육부, 미래창조과학부, 행정자치부, 문화체육관광부, 농림축산식품부, 산업통상자원부, 보건복지부, 환경부, 국토교통부, 해양수산부
 - 국민안전처, 식품의약품안전처, 방위사업청, 농촌진흥청, 산림청, 중소기업청, 특허청, 기상청, 문화재청, 원자력안전위원회
- 대상사업 : 기본계획의 5대 전략 78개 추진과제 관련 정책 및 사업
 - ※ 인문사회 R&D 사업 및 일부 국방 R&D사업, 정책연구사업, 기관운영경비 및 인건비성 사업은 제외

□ 중점 방향

- 각 중앙행정기관의 추진실적 및 시행계획 중 주요 사항에 대해 심층검토를 실시하여 '16년도 권고사항 도출
 - ※ (각 기관) 기본계획 및 '15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자체 진단, '16년도 시행계획(안) 작성 → (미래부) 전문가 검토의견 제시 → (각 기관) 재검토 및 시행계획(안) 반영
-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해 정책·예산·평가 간 연계 강화
 - 각 중앙행정기관의 추진실적 및 시행계획(안)과 '17년도 예산 연계 추진
 - 기본계획 추진실적 심층검토에 대한 각 중앙행정기관의 조치 결과를 '16년도 자체평가부터 반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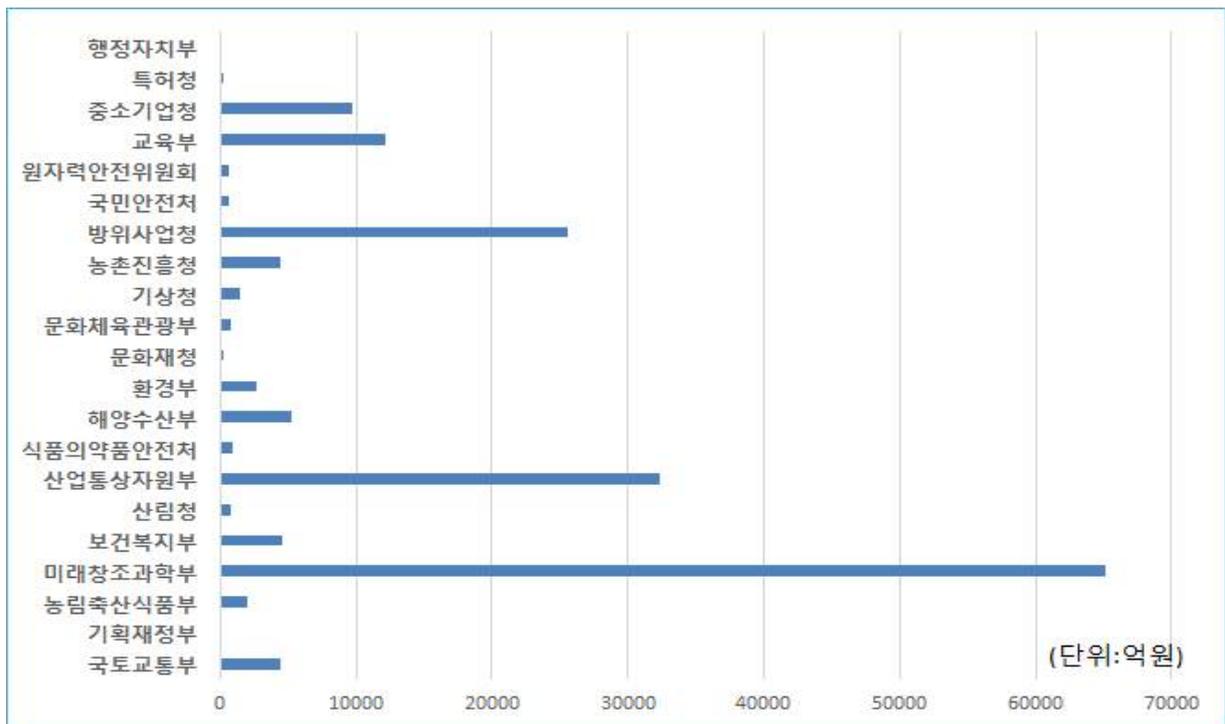
□ 분야별 예산 투자 현황 및 부처별 예산 투자 현황

○ 5대전략 분야별 예산 투자 현황(17조 4,220억원)



※ 인문사회 R&D, 일부 국방 R&D 및 기관운영 경비 등이 제외되어 '16년도 정부 R&D 예산 총액(19.1조원)과 차이 발생

○ 부처별 예산 투자 현황



참고 2 5대 전략별 2016년도 시행계획 주요 내용

[전략1] R&D 투자 확대 및 효율화

◇ 미래성장동력 창출과 국가 혁신역량 확충 등을 위해 국가R&D 투자 확대 및 질 높은 연구 성과 창출을 위한 연구자 친화적 R&D 환경 조성 추진

▶ 정부 R&D 투자 확대 (조원) : ('13) 17.1→ ('14) 17.8→ ('15) 18.9→ ('16) 19.1
 ['13부터 누적 기준] ('15) 53.8→ ('16) 72.9→ ('17) 92.4 (목표)

- (투자확대) 2016년도 정부 R&D 투자는 19.1조원으로 2013년도부터 총 72.9조를 투자하게 된다.
- (전략성 강화) 기술분야별·정책유형별 중장기 R&D 투자 전략에 따라 '선택과 집중' 투자를 강화하고 정부와 민간 간 역할분담을 강화한다.
- (시스템 개편) 연구서식과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,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공고 확인에서부터 과제신청까지의 창구 단일화를 확대하는 등 연구행정 간소화로 연구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부담 경감을 추진한다.

[전략2] 국가전략기술 개발

◇ 120대 국가전략기술 수준을 높이기 위해 미래성장동력 분야 중심의 기술경쟁력 강화 지속 추진

▶ 미래성장동력 창출(5G, 지능형 반도체) 분야 투자 : ('15) 1조 810억원→ ('16) 1조 1,807억원

- 120개 국가전략기술 기술수준의 2017년 목표 달성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였다.

< 국가 전략기술 수준 및 예산 증감률 >

추진 과제		기술수준*		예산(억원)	
		2014년	2017년(목표)	'15년	'16년
경제지속 성장 견인	ICT 융합 신산업 창출	81.2%	85%	20,072	21,166
	미래성장동력 확충	76.2%	80%	56,243	58,158
삶의 질 향상 기여	깨끗하고 편리한 환경 조성	77.8%	80%	5,230	5,025
	건강장수 시대 구현	77.4%	85%	2,290	2,349
	걱정 없는 안전사회 구축	75.2%	80%	4,390	4,158

* 최고기술 보유국의 기술수준대비 상대적 기술수준(2014년도 기술수준평가 결과 활용)

[전략3] 중장기 창의 역량 강화

◇ 창의적 기초연구 강화, 창의·융합형 인재 양성·활용, 국가발전의 거점으로 출연연 육성 등을 통한 연구개발 혁신역량 강화

▶ 기초연구 비중(R&D 예산 대비, %):('14) 37.1 → ('15) 38.1 → ('16) 39.0 → ('17) 40.0(목표)

- (기초연구) 정부 R&D의 기초연구 비중을 확대하고('16년 39%), 미래부와 교육부 간 협력을 통해 기초연구의 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한다.
 - ※ 미래부는 수월성 중심(중대형 연구), 교육부는 풀뿌리 지원 및 후속세대(소규모 중심)
- 아울러, 하반기에는 중장기 창의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'미래 50년 대한민국 기초연구 발전 비전·목표'를 수립할 예정이다.
- (인력) 현장 수요에 부응하는 과학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범부처 합동으로 '2016 공대혁신방안'을 수립할 계획이며,
 - 산업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SW교육 혁신을 선도하는 SW중심 대학을 확대 13개 이상으로 확대한다.
- (출연연) 원천기술 창출기지로서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, 상반기 중 중소기업 지원체계 고도화 방안을 수립하는 등 中企 지원도 확대한다.
 - ※ 산업기술 중심 출연(연) 주요사업비의 1/3이상을 中企 협력에 투입(~'17년)

[전략4] 신산업 창출 지원

◇ 중소·벤처기업에 대한 정부 R&D 지원, R&D에서 창출된 연구성과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

▶ 중소·중견기업 지원 예산 : ('15) 1조 3,629억원 → ('16) 1조 3,706억원

▶ 기술 수출액(백만 \$): ('13) 5,311 → ('15) 9,765 → ('16) 10,000 (목표)

- (지원 강화) 정부 R&D예산 대비 중소·중견기업 투자 비중을 18%까지 확대하여 당초 '17년도 목표인 18%를 조기에 달성할 계획이다.
 - 아울러,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제도의 혜택을 받는 대상기관을 확대(R&D 300억원 이상 기관)하고, '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단'을 설치하여 지원실적을 점검하는 한편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간다.

- (기술이전) 정부 R&D에서 창출된 연구성과를 성공적으로 기업에 기술이전하여 사업화할 수 있도록 **사업화 초기 장벽을 극복할 수 있는 지원을 확대한다.**
 - 대학의 기술이전 전담조직과 기술지주회사 간 협력을 통해 기술 사업화 역량 강화를 유도하고, 기술개발 이후 사업화 촉진을 위한 산·학·연 협력에도 지원을 확대한다.
 - ※ 기초연구성과활용지원사업(미래부) : ('15) 207억 → ('16) 236억
 - ※ 대학TMC(기술경영센터) 운영(30~40개)
 - ※ 연구소기업 설립(누적) : ('15년) 160건 → ('16년) 260건(신규 100건)
- (규제 개선) 사물인터넷, 빅데이터와 같은 신산업 분야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개선 사항을 국민점검단을 통해 발굴하여 개선하고,
 - 부동산, 배달 등 오프라인 산업과 온라인이 연계되는 O2O(Online To Offline) 산업에 대한 규제개선전략도 연내 수립할 예정이다.

[전략5] 과학기술 기반 일자리 확대

◇ 성장단계별 지원을 통한 기술기반의 창업기업 확대('16년도 570개), 창조경제혁신센터 고용존 중심으로 취업 대상별 맞춤형 정책 추진

▶ **창업활동지수(TEA; %)** : ('13) 6.6 → ('15) 9.3 → ('17) 10.0 (목표)

※ 18~64세 인구 중 현재 창업준비중이거나 3~42개월의 신생 기업을 소유·경영하고 있는 인구비중

- (창업 지원) 성장단계별 지원 전략을 통해 연구소기업, 기술지주회사와 같이 기술 기반의 창업기업을 570개로 확대할 계획이며,
 -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여 시장에 출시하기 전 시범·실증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근거(가칭 '규제 프리존 특별법')를 마련할 예정이다.
- (일자리 연계 지원)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창조경제혁신센터 고용존을 중심으로 취업 대상별 맞춤형 정책도 추진한다.
 - 일자리콘서트 박람회 개최, 취업 멘토링 제공과 함께 이공계 인력 중개센터를 운영하여 구직자와 기업 간 매칭기회를 확대 할 계획이다.